



박철우(나사렛대)

1. 서언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를 성서 번역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학자이며 현대 성서번역학의 시조라고도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그가 주장했던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 원칙은 기존의 형식적 일치(formal correspondence) 번역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이었다.¹⁾ KJV, ASV, NASB, RSV 등에 나타난 번역 전통과 우리의 개역전통이 이 형식적 일치의 번역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은 성경 본문의 의미전달에 많

1) 이 표현은 1986년 얀 드 바(Jan de Waard)와의 공저인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Jan de Waard and Eugene A. Nida, Thomas Nelson Inc., 1986)에서부터 기존의 표현인 dynamic equivalence를 대체한다. Cf. Nigel Statham, "NIDA AND 'FUNCTIONAL EQUIVALENCE': The Evolution of a Concept, Some Problem, and Some Possible Ways Forward", *The Bible Translators*, 29-43.

은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성경의 원내용을 현대 독자들에게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문제는 성경 번역의 핵심과제였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내용 동등성이라는 관점에서 방법론적으로 체계화한 학자가 유진 나이다다. 「표준새번역」은 바로 나이다 시대의 번역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논의되는 스코포스 관점²⁾ 곧 다의성(多義性)을 내포하고 있는 본문의 의미 중, 막연한 대상을 위해, 오직 하나의 어휘 또는 문장만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고 보고, 원문의 내용을 특정한 번역 수요자들의 이해를 위해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스코포스적 관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 목적론적 관점의 성경 번역 곧 성경 번역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그리고 독자의 필요에 따른 번역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사실은 나이다의 독자 반응에 대한 관심의 발전적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독자의 필요성에 적합한 번역이 필요하며, 이것은 결국 다양한 번역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문을 열어준 이론이다. 물론 이 목적론적 관점이 앞으로의 성경 번역에 많이 반영되리라고 생각되지만, 기존의 기능적 동등성이라는 관점의 성경번역도 고유한 현실적 장점이 있다. 성경은 대상에 따라 무수히 번역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보통 10년 정도, 빨라야 5년 이상이 필요한 작업이며 많은 인력과 경비와 유형무형의 지지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며, 성경 번역대상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번역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성경 원문의 내용과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글세대’를 그 대상으로, 교회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번역한 「표준새번역」³⁾은 아직 가치가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대한성서공회의 방침도 성경은 늘 세대를 두고 새롭게 번역되지만, 「개역성

2) 조지윤, “성서번역자 양성과정 위한 제안 - 스코포스 이론과 번역의 실재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제12호(2003.1), 121-140; 조지윤, “존대법 번역과 성경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제25호(2009. 10), 127-148.

3) 2001년 11월 「표준새번역, 개정판으로 출판된 성경이 2004년 9월부터 「새번역」으로 명칭이 바뀜. 본 글에서는 이를 구별하여 사용하였고, 이 둘을 통합적으로 언급할 때는 초판 번역명칭인 「표준새번역」을 사용함.

경」은 개역전통대로 「공동번역성서」는 「공동번역」 전통대로 「표준새번역」은 「표준새번역」 번역 원칙대로 보완해 가면서 새 시대에 적용되도록 하며 완성도를 높여 간다는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번역은 고유한 방법론적 특징과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표준새번역」의 장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표준새번역」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준새번역」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과 진행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 번역이 갖고 있는 한계와 장점, 개선책과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표준새번역」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 논문 제목에 있는 ‘과거’라는 말은 「표준새번역」 초판과 개정판(「새번역」)의 역사적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며, ‘미래’는 이 개정판(「새번역」)의 재개정에 대한 필요를 함의하고 있는 말이다. 이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표준새번역」 약사를 먼저 다루고, 「새번역」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되는 표현인 인칭 대명사 ‘당신’과 ‘너희’의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시하고, 아울러 「표준새번역」 초판 때부터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일련의 히브리어 문법적 문제들을 언급함으로써,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방대한 토론의 장을 열며 동시에 「표준새번역」의 미래 과제를 피력하고자 한다.

2. 「표준새번역」 성경 번역의 약사

1980년대 성경 번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는, 개신교 천만 시대가 왔음에도 우리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고, 「개역성경」을 한글세대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점점 낡은 상황이 되어가고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1967년, 「새번역 신약」이 출판되었다. 물론 이 「새번역 신약」은 ‘구약성경 새번역’까지 예상한 것이었으나,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하기로 한 「공동번역」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어 신약 번역만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다. 「공동번역」이 1971년에 신약, 그리

고 1977년에 구약과 외경 합본성경으로 먼저 출판되게 되었다. 이「공동번역」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동작품이었고 그것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역동적 동등성 번역원칙을 적용하였고, 현대의 성서신학과 주석적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반영된 「공동번역성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 성경은 1985년 중반기까지 이미 45판을 인쇄했을 만큼 많이 읽힌 책이다. 그럼에도 개신교 예배에서는 대한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한국 개신교 신앙 정서에 맞는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그래서 1983년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다.⁴⁾

1983년 여름부터 대한성서공회 김주병 총무는 「새번역 신약」(1967년)의 짝이 되는 구약번역을 위해 ‘새번역 구약’에 참여할 번역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후보에 오른 번역위원들 가운데 우선 민영진 교수(감신대), 이군호 교수(목원대학), 김갑동 교수(서울신학대학), 강사문 교수(장로회신학대학)가 번역계획에 참여할 의향을 밝혔고, 당시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시편연구로 박사학위를 마쳐가던 김이곤 교수(한신대학)와 독일에 유학중이던 기독교 장로회 임태수 목사와 이양구 목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박준서 교수(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등이 새번역에 대한 참여를 동의해왔다. 윤영탁교수(합동신학교)는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여 참여 결정을 미루었다.⁵⁾ 윤영탁 교수는 박철우 교수(성공회 천신신학교)와 함께 1985년 7월에 정식으로 번역 팀에 합류하였다⁶⁾(그리고 1987년부터 ACTS의 손석태 교수, 총신대학교의 김의원 교수 등이 참여하였고, 신약성경 번역을 위해 서중석 교수[연세대], 김창락 교수[한신대], 박형용 교수[합동신학교] 등이 함께 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대한성서공회는 일단 참여의사를 밝힌 학자들을 중심으로 예비작업을 시

4) “대한성서공회 회의 자료집, 제1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199.

5) 윗글, 198.

6) 윗글, 202.

작하였다. 김주병 총무는 새번역 구약 번역 지침을 준비하였고, 1983년 12월 23일, 번역계획에 참여 의사를 밝힌 네 명의 교수(강사문, 김갑동, 민영진, 이군호)가 먼저 이를 확인하였다.”⁷⁾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번역은 새번역 신약(1967)에 짝을 맞추기 위한 구약 번역이다. 2. 우리 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언중(言衆)(10대와 20대, 중등 교육 정도)이 쓰는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다. 3. 본문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한 다음 그것을 우리의 어법(語法)에 맞게 표현한다. 4.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육에도 적합한 번역이 되도록 노력한다. 5. 고유명사는 개역을 따른다. 6. 우리나라 교회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극소수의 용어(예: 처녀, 인자, 흥해)는 가급적 바꾸지 않는다.”⁸⁾ 이 구약 새번역을 위한 원칙은 더 세밀하게 정리되어 1984년 8월 25일에 발표되었다.⁹⁾

한글세대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 한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표준어로 번역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원어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번역 본문에서 번역어투를 없애고, 우리말 관용구를 활용하여 원문이 뜻하는 바를 우리말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며.... 원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와 번역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가 같도록 한다.”¹⁰⁾ 내용동등성의 원칙, 역동적 번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번역과정에서 개역적 전통을 간과할 수 없었고, 결국 「표준새번역」은 「공동번역」과 「개역」의 중간선을 취하게 되었다. 영어 성경으로 비교하자면, 내용동등성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TEV와 KJV의 중간에 해당되며, NIV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현대 주석적 연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는 JB나 NRSV, NEB보다는 보수적 입장에 있었고, KJV보다는 더 자유로웠

7) 윌글, 198.

8) 윌글, 197; “이 지침은 대한성서공회의 김주병 총무가 기초한 것으로서 대한성서교회 새번역 구약의 번역계획과 번역 동기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자리에서 발표된 것이다(1983년 12월 31일)”, 윌글, 198.

9) 윌글, 205-210; 민영진, 「성경 새번역 이렇게 하였다」, 『월간목회』, 1991년 1월호, 169-174.

10) 「새번역 성경」, 머리말.

다. 이것도 NIV 정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과 절의 구분은 개역을 따랐으며, 고유명사의 음역은 「개역」을 따랐다. “인명과 지명 또는 음역되는 특수 단어는 모두 우리나라 개신교 신도들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개역의 음역을 그대로 따랐다.”¹¹⁾ “다만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성경의 몇 가지 고유명사들은, 성경 독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표기를”¹²⁾ 따랐다. 예 “애굽, 바사, 구스, 서마나, 구브로 등을 이집트,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스페인, 키프로스 등.”¹³⁾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여호와’를 ‘주’로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오래된 성경번역 전통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매우 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고유명사(YHWH, Tetragrammaton)를 ‘아도나이’(주)로 읽어왔고, 신약의 저자들도 당연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여호와)을 ‘주’라고 불렀다. 70인역, 불가타, 16세기 루터의 독일어 성경, KJV, NKJV, NASB, NIV도 이를 따라 ‘아도나이’(주, Lord)로 번역하였고(ASV는 Jehovah로 번역하였음), 이 ‘주’는 「개역」 신약의 표현을 따른 것이다.¹⁴⁾

1984년 8월 25일 발표된 번역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약 39권중 1차로 분담을 받은 번역위원과 책은 다음과 같다.

강사문 신명기(34)
김갑동 출애굽기(40)
김이곤 시편(40/150)
민영진 레위기(27)

11) 윗글, 머리말.
12) 윗글, 머리말.
13) 윗글, 머리말.
14) 윗글, 머리말.

박준서 창세기(50)

이군호 룯기, 열왕기상(4+22=26)

이양구 이사야(66).¹⁵⁾

번역자들은 이렇게 분담된 책의 초고를 준비하고, 이를 번역실로 보내면 그 본문은 컴퓨터에 입력된다. 그리고 이것을 복사하여 다른 역자들에게 보내면 다른 역자들은 이것을 검토한다. 여기에 중요한 규정 중의 하나는, “초고를 검토하는 이는, 자기도 다른 번역자에게 검토 받을 초고를 준비하여야한다. 번역 초고를 준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번역만을 검토하는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⁶⁾ 이것은 이 번역이 완전히 팀 스피릿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초역의 검토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 “(1) 1차 원고가 준비되면 그것은 곧 다른 역자들에게 배부되고 특히 그 중 한 역자에게 정밀 검토를 맡긴다.
- (2) 시간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원고 분량에 따라 검토를 끝내는 마감 시간을 정한다. (30매 이내의 원고는 검토 기일을 일주일 이내로 한다)
- (3) 동료 역자(들)의 검토가 끝나면 그것은 곧 초역자에게 전달돼 초역자는 검토자(들)의 의견을 분류 정리하여 분명한 오류는 바로 잡고, 초역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들은, 필요에 따라 모이는 번역자들 전체 모임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4) 번역 팀은 논의되는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서둘러 내리지 아니한다. 한 책의 번역이 관련됨에 따라 유사한 문제들을 계속 만나게 될 것이며, 한 책의 처음 부분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같은 책의 뒤에서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유사한

15) “대한성서공회 회의 자료집”, 제1권, 211; 그러나 1985년 7월부터 번역위원으로 위촉된 박철우 교수의 논문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는 박철우 교수가 번역을 하게 되었고, 김갑동 교수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출애굽기는 박철우 교수가 번역하게 되었다.

16) 윗글, 212.

문제들과 계속 함께 논의되다가 그 책의 번역이 끝날 때까지는 함께 해결을 짓도록 한다.

(5) 검토를 끝낸 원고는 컴퓨터실로 보내지고, 거기서 수정된 부분이 입력된다.”¹⁷⁾

번역상의 이견이나 특별히 연구할 내용들을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회합을 가졌다. 대개 서울을 벗어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여 모임을 가졌다.¹⁸⁾ 그리고 이 모임에서 번역자들의 발표들이 있었고, 워크숍 등이 수행되었다. 유진 나이다가 역자들과 함께 하였고, 국어학자 박창해, 정길남, 그리고 시인 전무용 등이 발표를 하였다. 대한성서공회가 두 차례에 걸친 유진 나이다 초청 워크숍을 통하여 번역 방향과 방법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한 것과¹⁹⁾, 국어학자들의 강연을 통하여 「표준새번역」에서 추구하려 했던 번역원칙을 숙지하고 특히 국어학적 관심과 역량을 키워가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당시 코디네이터 겸 부총무였던 민영진 박사와 대한성서공회의 공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²⁰⁾ 그리고 문장가의 역할이 있었다.

“(1) 번역 팀의 검토가 끝난 원고는 즉시 문장가(들)에게 전달된다.

(2) 문장가의 의견은 번역 팀에서 검토될 것이다. 원문의 의미를 희생시키지 않는 한, 우리말의 문체론에 입각한 표현방식과 문장가의 문체에 대한 견해는 존중되어야 하며, 역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익힌 문장 기술을 번역에 반영시키도록 한다.

(3) 컴퓨터 입력.”²¹⁾

17) 윗글, 212-213.

18) “대한성서공회 회의자료집”, 대한성서공회, 성서학 도서관 소장 자료.

19) 1984년 8월 대만 워크숍; 1987년 8월 홍콩 워크숍; 민영진, 윗글, 169-174.

20) 1988년 여름 대한 성서공회 속리산 번역자 모임.

21) “대한성서공회 회의 자료집” 제1권, 213.

문장가로는 전무용 시인(현 대한성서공회 번역 담당 국장)이 많은 역할을 감당하였다. 지금의 번역환경은 「표준새번역」이 수행되던 때와는 많이 다르다. 그 당시에는 번역도구들이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았다. 히브리어의 의미학과 문법해석까지 모두 번역자의 학문적 역량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초역자의 역할과 검토자의 역할이 중요했고, 히브리 문학의 전문성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다. 대한성서공회(KBS)를 포함한 세계성서공회(UBS)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파라텍스트(Paratext)²²⁾는 간단한 주석, 본문분해, 고대 및 현대의 다양한 역본들에 대한 검색기능, 그리고 번역자들의 번역과정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제는 상당부분 기계적 번역에 가까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성서번역에서 성서학자들의 전문성, 특히 주석적 수사학적 차원에서 본문에 대한 성서학자들의 세밀한 안목은 변함없는 절대적 필요조건이지만, 이제 Ph. D. 성서학자가 아니더라도 초역 및 검토과정에서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번역자들에게 국어에 대한 문학적 감각과 실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표준새번역」 시대에도 대한성서공회는 역자들에게 여러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 제공하였다. 앞으로 국문학적 역량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자문위원의 역할도 중요하였다.

“(1) 문장가의 문장 수정을 거친 원고는 다시 번역 팀에 회람되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원고는 자문 위원에게 전달된다.

(2) 번역 코디네이터(translation coordinator)는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수집 분류하여 번역 팀에 내놓고, 번역 팀의 역자들은 자문위원의 견해를 참고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제안에 대하여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에 반영시킬 수 있는지를 결

22) 대한 성서공회 전무용 국장의 구두 언급. UBS가 1990년대 말엽부터 보급하기 시작하여 계속 업그레이드하여왔고, 2013년부터 번역자들에게 보급하여 활용하게 함.

정한다.”²³⁾

그리고 최종원고를 준비하여 교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쳤다.

- “(1) 내용 교정: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읽고 다른 한 사람이 따라가며 확인한다.
(2) 형식 교정: 숫자, 문단 구분, 구두법, 철자 등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교정을 본다.
(3) 성서 본문 교정에 관한 방법에 관해서는 UBS가 제공하는 방법을 참고, 활용한다. UBS의 ‘원고 준비 지침(Preparing the Manuscripts)’²⁴⁾

각각의 책을 위해 수많은 피드백과 연구와 조율을 거쳐 결국 출판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번역자들의 화합과 소통을 필요로 하였다. 신학적 배경과 교육 배경을 달리하는 학자들이 모여 이룬 은혜였다.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갈등도 있었다. 그러나 은혜로 이것이 해결되었고, 이것을 민영진 박사가 잘 조율하였다. 결국 번역위원들은 끈끈한 형제애 같은 것을 느끼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 번역은 성서학자들뿐만 아니라 국문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합심한 결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1992년 12월 말경 마무리가 되었다. 일단 개신교에는 1967년에 출판된 「새번역 신약성경」이 있었다. 번역 초기에 대한성서공회는 이 「새번역 신약성경」과 짝이 되는 새번역 구약성경을 번역출판하려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새로운 구약’에 맞춘 새로운 ‘신약성경 새번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신약 번역팀(1987년 유진 나이다 워크숍에 신약 팀도 합류하였음)도 새롭게 구성되어 함께 운영되었다,

23) 윗글, 213-214.

24) 윗글, 214.

3. 「표준새번역」 출판 이후의 상황

1993년, 「표준새번역」이 출판된 후 호불호가 갈렸다. 참신하며 쉬운 우리말로 된 성경으로 이해가 잘되어 좋다는 평가와 자유주의적 번역이라고 비판하며 거부하는 측으로 갈렸다. 특히 일부 교단 인사들은 번역자의 학문적 배경과 신학적 경향을 언급이며 이단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실제 번역자들은 대개 유럽과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고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이었다. 일단 출신학교만 보아도 대개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소위’ 자유주의적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었다. 뉴욕 유니온 신학교, 히브리 대학교, 영국 애버딘 대학교, 미국 하버드 대학교, 브렌다이스 대학교, 독일 본 대학교 등.

그 부정적 견해는 세력화하였고, 상당히 심각한 단계까지 갔었다. 결국 각 교단을 대표하는 16명의 목사로 구성된 개정위원회가 조직되었고, 몇 명의 구약 및 신약학자가 참여하였다. 그 개정작업의 결과를 대한성서공회에서 검토하였고, 구약은 민영진 박사가 그리고 신약은 김창락 박사가 개정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내용의 가치 여부를 검토하여 개정에 반영하였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 적용의 양은 다소 달라지게 되었으나, 그것이 성경에 반영되었고, 그리고 그 사이 성서공회에 들어온 여러 제안을 참고로 「표준새번역」을 개정하여 개정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2001년판 「새번역 성경」 머리말은, 개정의 주체가 대한성서공회임을 보여준다.²⁵⁾ 「표준새번역」이 출간된 지 8년의 기간 동안 많은 독자들의 제안이 있어 왔고, 16개 교단에서 파송된 개정위원들의 검토가 있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는 그간의 성경번역과 개정의 경험과, 세계성서학회의 학문적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새번역」 개정을 완료하였음을 피력한다.²⁶⁾

25) 대한성서공회 전무용 국장의 확인을 거친 내용임.

26) 「새번역」, 대한성서공회, 2004, 「새번역」 머리말.

개정의 일차적 원칙은「표준새번역」의 원칙을 고수하여, “원문의 뜻을 우리 말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되, 쉬운 현대어로, 우리말 어법에 맞게, 한국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한다”²⁷⁾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네 가지 점에 착안하여 개정하였음을 밝힌다.

- (1) 번역이 정확하지 못했거나 의미전달이 미흡한 경우
- (2) 가능한 한 번역어투를 없애고, 뜻이 우리말로 잘 표현되도록
- (3) 난해한 원문의 경우 현대 성서연구 결과를 반영
- (4) 대화문에서는 우리말 존대법을 적용.²⁸⁾

신약의 상당부분 이 번역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구약의 경우 특히 시편의 여러 곳이 수정되었다. 그러나 과연 개정할 필요가 있었나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있다. 이 문제는 후일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는「새번역」에서 사용된 우리말 어법 특히 우리말 2인칭 대명사 ‘너희’와 ‘당신’에 대한 독자의 선호도에 관한 조사결과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성경을 읽으며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이, 「표준새번역」에서의 ‘너희’를 「새번역」에서 ‘당신’으로 바꾼 것이다. ‘당신’이란 말은 3인칭 극존칭으로 쓰이는 말이며, 이 압존법의 사용은 우리말 어법상 합당하다. 그러나 이것을 2인칭으로 사용할 경우, 사무적이거나 반말로 들릴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물론 필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수이긴 하나 이것을 더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다고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런데「표준새번역」에서 ‘너희’로 사용된 것을 「새번역」에서 ‘당신’으로 바꾼 것이다. 그래서 그 선호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설문조사를 하였다.

27) 원글, 「새번역」 머리말.

28) 「새번역」 머리말.

4. 인칭대명사 ‘당신’과 ‘너희’의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는 우선 나사렛 대학교 기독교학부 히브리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2017년 11월에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대부분 20대이고, 청강을 하는 30대 1명, 40대 1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나사렛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2018년 2월 28일 평택 안중교회 수요예배 때 실시하였고, 그 기간이 특별새벽기도 기간이어서 수요 저녁예배 참석인원(참여인원 53명)이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2018년 3월 4일 주일 오후예배에 총 55명이 설문 참여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2018년 2월 28일 수요예배에 참여한 53명의 설문 결과를 표본적 조사로 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최종 인원과 결과로 상세설명을 대신한다. 2018년 2월 28일 설문 상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지 응답인원은 53명이었고, 교회는 신흥 개발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심이 많은 30-50대가 주축을 이루는 지방도시 교회이다. 교인 수는 아이들까지 합하여 약 1500명 정도의 복음적이며 활발하고 자기 의사표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이다. 나사렛 교단의 가장 큰 교회중이 하나이며, 담임목사도 진취적이며 지성과 영성을 잘 갖춘 사람으로서 평택지역 기독교 연합회장도 역임한 유능하고 존경받는 목사이다. 그리고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투철하고 서정적 시인이며 교육에 관심이 많아 교회를 성도들과 지역사회의 교육의 중심이 되게 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응답자 53명 중 47명이 ‘너희’를 선호하였고 6명이 ‘당신’을 선호하였다. 전체적으로 10:1의 비율이었고, ‘당신’을 선택한 사람들은 1명이 40대 남성이었고, 5명이 40대 여성이었다. 그 중 한 답변자는 40대 여성으로서 ‘당신’이라는 말은 “자연스레 존대말로 마치게 하는데 모세가 자신에게 부여된 영적 권위를 휘두르거나 남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배성들을 배려하고 조곤조곤 설득하고 차분히 가르치는 느낌을 준다”는 코멘트를 남겼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너희’란 표현에 대한 느낌으로, “모세를 통해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이며 익숙한 느낌이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결국 그가 취한 선택은 ‘너희’였다.

또 다른 성도는 의외로 ‘당신’이란 표현에 대한 느낌으로, “존중해주고 있고 부드러운 표현”이라고 보았고, ‘너희’란 표현을 ‘사무적이고 권위적’이란 느낌이 든다고 말하며, ‘당신’을 선호하였다. 이것이 소수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었다. 세 사람 모두 40대 여성이며, 그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그 표현이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가의 여부’였다.

찬성한 사람들의 연령분포는 다음과 같다. 40대 여성의 경우, “‘당신’의 경우, 별로 듣기가 불편하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친근감이 든다.” 한 30대 여성도는 “‘당신’은, 거리감이 있고, ‘너희’는 익숙하고 친근하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 인칭대명사들에 대한 보편적 느낌이었다. 50대 여성도, “‘당신’은 멀고 어색한 사람에게, ‘너희’는 아주 친한 친구에게 하는 말 같다”고 말한다. 50대 여성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느낌을 더 준다”, 40대 여성도, “‘당신’은 사무적이고 거리감이 느껴진다. ‘너희’가 더 친근감이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라고 첨언한다.

40대 남성, “‘당신’이라는 표현은 모세와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서 다소 먼 느낌을 준다. ‘너희’란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표현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아버지와 부모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입장에서 그 마음에 그 백성을 향한 친밀감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너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우리의 정서에서 오는 느낌이라는 점에서 이해해 주면 좋을 듯하다”고 말한다.

50대 남자성도, “3인칭으로 쓰일 때는 존칭어처럼 들리지만, 2인칭으로 쓰일 때는 오히려 반말처럼, 경시하듯 들린다. ‘너희’의 경우, 낮추는 표현으로 들리지만, 권위가 느껴지는 호칭으로 들림으로 말씀에 경외감이 느껴진다”고 선호 이유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른 참여군들의 결과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주일 오후 예배 전체 참여자 55명중, '너희' 45명, '당신' 8명, 그리고 '여러분'이 더 낫다고 자신의 견해를 개인적으로 첩언해 준 사람이 2명이 있었다.
- (2) 기독교학부 참여 학생들 31명 중 3명의 응답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28명중 24명이 너희로(86%), 4명(14%)이 당신으로 대답하였다. 이들 중 22명이 20대 초반, 1명이 30대, 1명이 40대였고, 이들의 교단 분포로는, 예장 13명, 고신 1명, 성결교 2명, 나사렛 5명, 감리교 2명, 독립교단(우리들 교회) 1명이었다.
- (3) 신학대학원 17명중 '너희'를 선호한 학생이 15명(88%)이고, '당신'을 선호한 학생이 2명(12%)이었다.

결론적으로, 전체 인원 123명중 107명(87%)이 '너희'를 선호하고, 16명(13%)이 '당신'을 선호하였다. 그 이유로 대개 '당신'은 사무적이고 익숙하지 않으며, '너희'가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5. 히브리어 문법적 차원에서의 검토

문법적 문제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문제들만 언급하도록 한다: (1) '희구법 카탈'(Precative/optative Qatal)의 문제; (2) 호격 라메드(Vocative lamedh)에 관한 문제; (3) 동어반복 구문(idem per idem).

1) 희구법 카탈(Precative/optative Qatal)의 사용²⁹⁾

“히브리 동사의 어간형 중 '카탈형'은 일반적으로 완료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안드라스(Alexander Andrason)은 RSV를 바탕으로 한 통계로, 이것이 전체 '카탈형'중 약 98%에 해당되며, 나머지 중 1.5%가 영어에서 may, can, would, should, must 등의 조동사로 표출되는, 가능성, 허락, 의도 등을 나타내

29) 필자의 논문, “한글성경 번역을 위한 희구법 카탈 적용의 필요성”, 『성경원문연구』, 제40호[2017년 4월], 71-94)의 서문부와 결론부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는 양태적 동사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남은 0.5%가 비동사적(non-verbal uses)으로 사용된다고 말한다.³⁰⁾

이 양태 동사적 용례가운데 성경번역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용례가 회구법적 용례들(precative or optative Qatal)이다. 이 회구법적 용례에 관한 이해는 이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이론이지만, 그간 일부 이 이론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존재해 왔다.”³¹⁾

“이 이론은 이미 1855년 에발트(Heinrich Ewald)에 의해 부분적으로 관찰되기 시작한 이래로³²⁾, 1902년에는 데이빗슨(A. B. Davidson)도 카탈이 가끔 소망을 표현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비록 그가 이것을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하였으나, 그는 이것을 동사 어미활용(suffix conjugation)의 완료 의미에 내재되어있는 의미로 보았고, 이 회구법적 의미가 미래 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³³⁾ 쥐옹(Paul Joüon)도 카탈의 회구법적 의미를 인정한다. 그는 명사절이 간구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상태완료(stative perfect[‘활용된 형용사’ conjugated adjective])가 간구적 뉘앙스를 가질 수 있듯이, 능동완료도 회구적 의미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³⁴⁾

30) Alexander Andrason, "An Optative Indicative? A Real Factual Past? Toward A Cognitive-Typological Approach to the Precative Qatal,"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vol. 13, (2013), 1-42; cf. L. McFall,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heffield: Almond Press, 1982), 186-187.

31) 윗글, 박철우, 71.

32) Heinrich Ewald, *Syntax of the Hebrew Language*, tr. James Kennedy, (Edinburgh: T. & T. Clark, 1879), 15 (Originally, *Ausführliches 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 des alten Bundes*, Göttingen, 1870).

33) A. B. Davidson, *Hebrew Syntax* (Edinburgh: T. & T. Clark, 1902), 63; 3인칭 회구법 카탈의 예들: Ps 67:7; 68; 10:16; 67:6; 107:42; 109:28; 129:4; Lam 1:21; Is 43:9; Possibly, Job 21:16; 22:18; 2인칭 회구법 카탈의 예들: Ps 4:2; 3:8; 7:7; 25:11; 31:6; 56:9; 60:6; 61:6; 85:2-4(?); 119:21; 140:8; 그리고 위에 언급된 본문들의 대부분은 명령법이나 지시법 또는 또 다른 회구법 동사와 연결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J. C. L. Gibson,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Syntax*, 4th ed. (T. & T. Clark: Edinburgh, 1896[A. B. Davidson, 2nd ed.]), 1994, 69. 안드라스은 회구법적 의미를 이러한 내재적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설명이라고 비판한다.

34) Paul Joüon,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e: Editrice Pontificio Biblico, 2006), 336-337, ss. 112.k; 참조, adjective의 한글번역에 대한 새로운 제안[‘속성사’];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제39호(2016.10), 148-159; 윗글, 박철우, 72-73.

“특히 부텐비저(Moses Butenwieser)는 각 시편의 문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 이론을 전개하였고, 회구법적 카탈은 기도나 탄원의 문맥 속에서 나타나며, 미완료 ‘의탁’이나 명령형 ‘커툴’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³⁵⁾ 그는 이 회구법 카탈의 기원을 고대인의 의식구조, 즉 말의 주술적 힘이라는 개념에서 찾는다. 고대인들은, 그들의 소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발설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회구법은 바로 여기에서 기원한다고 보았다.³⁶⁾ 이것을 예언자적 완료와 같은 것으로 본다.³⁷⁾ 이스라엘 아이탄(Israel Eitan)도 그의 논문에서 회구법 카탈을 이미 확증된 이론으로 인식하며, 이 회구법 카탈(1st. precativative or optative perfect)에서, 명령적 의미를 내포하는 ‘바브 + 카탈’로 발전하고(2nd. imperative perfect), 그 후에 이것이 미래를 나타내는 완전한 형태의 ‘바브 전환법 카탈’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3rd & 4th, future perfect and absolute future).³⁸⁾ 이러한 견해는 최근에 에드워드 리핀스키(Edward Lipiński)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³⁹⁾

“회구법 카탈 이론은 다시 미첼 다후드(Mitchell Dahood)에 의해서 우가리트 문헌비교를 포함한 다양한 본문분석을 통하여 강화되었다.⁴⁰⁾ 제임스 휴즈

35) Moses Butenwieser,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with a new Translation*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69 [1st ed. 1938]), 19–25(from Hebrew Union College Jubilee Volume, 1925, 89–111).

36) Ibid, 24, 51.

37) Ibid, 24; 부텐비저가 제시한 대표적 응례들은 다음과 같다: Ps 65:10(p. 51); 21:3, 5b(p. 97); 85:2–4(p. 272); 83:11(p. 342); 47:10(p. 353); 3:8(p. 397); 4:2(pp. 401–402); 7:7(p. 418); 9:5, 17(p. 429); 35:22(p. 452); 18:44(p. 457); 83:11(p. 474); 129:4(p. 486); 63:3, 8(518); 63:9(p. 520); 31:6(598); 32:5(p. 656); 57:7(p. 720); 61:4, 6(758); 64:8(p. 762); 26:12(p. 814); 10:14, 16, 17(pp. 428–429); 17:3(p. 479).

38) Israel Eitan, "Hebrew and Semitic Particles: Comparative Studies in Semitic Philology," *AJSL* 46(1929), 25–26.

39) Edward Lipiński, *Semitic Languages: Outline of a Comparative Grammar*, 2nd ed. (Leuven: Peeters Publishers, 2001), 525–526; 윗글, 박철우, 73.

40) Mitchell Dahood, *The Psalms I:1-5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5); idem, *The Psalms II: 51-10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8); idem, *The Psalms III: 101-15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0).

(James A. Hughes)는, 히브리어 완료형의 본래적 기능들 중의 하나가 회구법(*precativ and optative*)이라고 주장하는 긴스버그(H. L. Ginsberg)를 따르며, 회구법 카탈 이론을 지지한다.⁴¹⁾ 그는 특히 이 회구법적 카탈을 헬라어의 단순과거 회구법(*aorist optative*)과 탄원이나 간구에서 사용되는 단순과거 명령(*aorist imperative*)과 유사하다고 본다.⁴²⁾ 그리고 이 회구법 카탈은 월트키(Waltke)와 오코너(O'Connor)에 의해 수용된다.⁴³⁾

필자는 2017년 「성경원문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며, 다후드(대부분 부텐비저에 의해 이미 제시되었던 용례들)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제안한 회구법적 용례들을 중심으로 이 회구법적 카탈의 의미를 우리말 성경번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 논문에서는 시편(MT)의 처음 6개의 시편(3, 4, 7, 9, 10, 17편) 안에 있는 용례들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회구법 카탈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수용하는 이론이다. NIV가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으나(참고, 시 4:1; 7:6), 다른 번역본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번역인 CEV(1995)는 이러한 회구법 카탈의 의미를 고려한 흔적이 상당부분 보인다(참고, 시편 3:7; 7:6). 주요 영어성경번역이 대부분 1970-1980년대에 이루어졌으며(NEB[1961]; NIV[1979]; NKJV[1982]; NJB[1985]; TNK[1985]; NRSV[1989]), 한글 번역성경 가운데 「표준새번역」은 1993년 초판이 출판 되었고, 이 당시 아직 보수적 정서를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공동번역」이 1977년에 출판된 것이므로, 아직 회구법 카탈 이론이 충분히 자리 잡기 전의 상황이었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 일부 시도

41) James A. Hughes, “Another Look at the Hebrew Tenses,” *JNES*, 29 (1970), 22-23; H. L. Ginsberg, “The Rebellion and Death of Ba’lu,” *Orientalia*, 5(1936), 177.

42) James A. Hughes, “Another Look at the Hebrew Tenses,” 22.

43)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IBHS), 494-495, ss. 30.5.4cd; 윗글, 박철우, 33-34.

44) 1999년에 개정된 「공동번역 개정판」은 1977년판 「공동번역」과 차이가 없었음(적어도 위에 분석된 시편의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참고, 시 4:1; 7:6). 물론 2004년의 「새번역」과 1999년의 「공동번역 개정」이 전면적인 개정은 아니었지만, 여기에서도 발전적 시도를 보여 주지 못했다.

최근 프랑스어 성경(TOB[2004]; *La Bible En Français Courant*[1997]; *La Nouvelle Bible Segond*[2002]; *La Bible Segond 21*[2007])에서 부분적이거나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나, 아직 충분한 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참고, 시 7:6 설명; 3:7(TOB)). 학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특히 1960년대 이전 저술들)는 아직 히브리어의 기존 문법에 대해 보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예를 들어, Arthur Weiser, Hans Joachim Kraus 등[시 7:6; 10:14 설명 참조]).

그러나 최근의 다른 많은 학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여러 주석서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Mitchell Dahood는 물론, John Eaton, Peter C. Craigie, A. A. Anderson, E. Beaucamp 등).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번역에서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이 회구법 카탈의 적용은 또 하나의 도전적 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특히 시편)에서 그 본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와 의도와 메시지를 더 정확히 표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⁴⁵⁾

2) 호격 라메드(Vocative lamedh)의 문제

성경에는 2인칭 콘텍스트에서 갑자기 3인칭으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번역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곤 한다. 시편 92편 2절; 3편 9절; 33편 1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미첼 다후드는 우가릿 문헌에 라메드가 호격으로 쓰이는 용례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히브리

경우).

45) 윗글, 박철우, 89-90.

어의 라메드와 같은 것으로 보아 이 문법적 난제의 해결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것에 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 대표적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J. Huehnergard, “Asservitive la and Hyperthetical lu/law in Semitic” JAOS103(1983), 569-593; Patrick D. Miller Jr., “Vocative Lamed in the Psalter: A Reconsideration,” UF 11(1979) 617-637; Bruce K. Waltke / M. P.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Preposition 11.2, 10h, footnote 96; W. Derek Suderman, “The Vocative lamed and Shifting Address in the Psalms: Reevaluating Dahood’s Proposal” VT65(2015) 297-312.

그러나 미첼 다후드의 견해를 옹호하는 학자들의 논지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개진되었다. 예수회 신부인 미첼 다후드가 일찍 소친한 이후(1922-82, 1957년부터 로마 Pontifical Bible Institute),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로버트 알탄(Robert Althann)은 다후드의 견해를 재검토하면서 이 이론의 타당성을 폭넓게 전개하였다. 그는 그의 책 *Studies in Northwest Semitic* (Biblica et Orientalia Book 45,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7)에서 키(*ki*), 라메드(*l*), 미(*mi*)가 호격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포프(Marvin H. Pope)도 다후드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⁴⁶⁾ 브라운리(William H. Brownlee)는 그의 책 *Ezekiel 1-19*⁴⁷⁾에서 이 호격 라메드의 용례로서 겔 13:2; 21:8(Eng 3); 25:3; 26:15; 30:2; 34:2, 17; 16:3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트(L. Boadt)는 그의 1980년 논문에서 미첼 다후드의 견해를 지지한다.⁴⁸⁾

한글성경에서, 「표준새번역」의 경우, 시편 33편 1절에서 호격 라메드의 번역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관찰할 수 있다(정직한 사람들이).⁴⁹⁾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이 문법적 문제를 시편 전반에 걸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

46) Marvin H. Pope, “Vestiges of Vocative Lamedh,” UF 20(1988) 205-206.

47) William H. Brownlee, *Ezekiel 1-19*, WBC, (Dallas: Word Books, 1986), 95.

48) L. Boadt, “Ezekiel’s Oracles against Egypt: A Literary and Philological Study of Ezekiel 29-32,” *BibOr* 37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80), 58-59.

49) Peter C. Craigie는 다후드를 따라 ‘라예사림’(O you upright ones)을 호격으로 번역한다 (Peter C. Craigie, *Psalms 1-50*, WBC, (Dallas: Word Books, 1995), 269-270.

각한다.

3) 동어반복 구문(idem per idem)⁵⁰의 번역

동어 반복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강조하는 이 구문(idem per idem)의 대표적 본문이 출애굽기 33장 19절의 표현일 것이다.

והנתי את אשר אחן ורחמתי את אשר ארחם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표준새번역』). 그 강조점을 살린 새로운 번역 대안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나는 진실로 자비로운 주이며,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다.” 여기에서 롤랑 드 보(Roland de Vaux)처럼 “나는 진실로 용서하며 은혜를 베푸는 주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으나, 출애굽기 33장 19절의 70인역(ἐλέησω ὃν ἂν ἐλεῶ καὶ οἰκτιρήσω ὃν ἂν οἰκτιρήσω)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단어 대 단어로 인용되어 하나님의 자유성(롬 9:17-24)과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인 은혜와 긍휼(롬 9:13-16)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⁵¹ 구약 본문에서 이 표현의 문자적 구조를 살려둘 필요가 있다. 문자적 표현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자유성도 표출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 해석을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

50) G. S. Ogden, "Idem per idem: Its Use and Meaning," *JOST* 53(1992), 107; Daniel I. Block, *Ezekiel 1-24*, NICO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391. 롤랑 드 보(Roland de Vaux)도 이미 이 수사학적 구문이 아랍어를 포함한 셈어의 전형적인 표현법 중의 하나임을 밝히며, 출 33:19를 강조적 의미로 번역한다("tener un valor de totalidad y intensidad"). 그리고 이 본문과 함께 에스겔 12:25; 36:20을 인용한다. "Yo soy en verdad quien perdona y se compadece." (Roland de Vaux, *Historia antigua de Israel*, vol.I, (Madrid: Ediciones Cristiandad, 1975), 341-343 (Original edition: *Histoire Ancienne D'Israel*, [Paris: J. Gabalda et Cie. Editeur], 1971); F. W. Bush, "I am who I am: Moses and the Name of God", *Theology, News and Notes* (Fuller Seminary, December 1976), 10-14, "I am indeed the one who is gracious", quoted by William Dyrness, (*Themes in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1979], 11); cf. Matthew Black, *Romans*, NCBC,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3), 133.

51) C. E. B. Cranfield,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II, ICC, (Edinburgh: T. & T. Clark, 1975), 470-503 (esp. 483-484); Matthew Black, *Romans*, 133; James D. G. Dunn, *Romans 9-16*, WBC, (Dallas: Word Books, 1988), 552.

하나, 번역에서 가능한 한 수사학적 뉘앙스를 살리는 것도 역자들의 중요한 역할(기능적 동등성 원칙)임으로 번역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 결어

대한성서공회는 우리나라에 번역 출판되고 있는 세 개의 번역을 지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며 출판할 것이다. 형식적 일치 번역원칙에 해당되는 「개역성경」(正)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동적 동등성원칙이 많이 강조된 「공동번역」(反)과, 그리고 그 실패 이후에 자연스럽게 중도의 길을 선택하게 된 「표준새번역」(合) 등 세 개의 트랙이 계속 발전하며 출판될 것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번역’은 새로운 번역원칙과 목적과 필요의 충족을 위해 출판될 것이다. 이러한 번역들이 다양한 독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며 출판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성경번역은 팀 스피릿이 중요하다. 번역에 참여한 모든 학자들이 한마음으로 뜻과 노력을 함께 하여 이 결과를 이루어 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본문은 전공분야대로 서로 나누어 초역을 하고 그것을 다시 나누어 검토하고, 제기된 문제를 피드백하고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을 정기 또는 비정기적 모임들을 통하여 조율하며, 번역위원들에게 필요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워크숍을 갖고 번역을 하는 동안 역자들의 번역 능력도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은 학자로서 더 견실하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것은 번역위원만의 일이 아니다. 성서학자 전체가 성경에 관한 여러 연구와 번역된 성경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평을 개진함으로써 발전한다.⁵²⁾ 그리고 국문학자와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복합적이고 총체

52) 한글성경번역의 문제는 ‘한국 구약학 역사’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논제일 수 있다. cf. 서명수,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을 위한 모색, 「구약논단」, 제21권 4호(2015), 209-231; 강성열, “한국의 구약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구약논단」, 제23권 1호(2017), 104-138.

적이며 전교회적인 작업이다. 그리고 성경번역의 수준은 그 나라 성도들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것도 성경번역과정에서 우리가 체험했던 사실이다. 이제 새로운 성경 번역에 기대를 건다. 스코포스 원칙에 의해 독자들의 필요와 편이를 많이 고려한 입체적인 번역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UBS가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Paratext)도 성서번역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정밀하고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더 번역출판 되기를 기대한다.

번역성경은 문화유산이다.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성경이다.⁵³⁾ 각 성경의 고유한 특징을 유지하며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이제 「표준새번역」 자체도 재개정의 과정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여기에도 또 다른 변증법적 완성, 곧 「표준새번역」이 변증법의 정(正)이었고 「새번역」이 반(反)이라면, 이제 새로운 합(合)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참고문헌

- 강성열, “한국의 구약학: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구약논단」, 제23권1호 (2017), 104-138.
-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제39호(2016. 10), 148-159.
- 민영진, “성경 새번역 이렇게 하였다”, 「월간목회」, 1991년 1월호, 169-174.
- 박영신, “기독교와 한글운동”, 「기독교와 한국역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39-69.
- 박철우, “한글성경 번역을 위한 회구법 카탈 적용의 필요성”, 「성경원문연구」, 제40호(2017년 4월), 71-94.
- 서명수, “한국적 구약학의 가능성을 위한 모색”, 「구약논단」, 제21권4호(2015),

53) 박영신, “기독교와 한글운동”, 「기독교와 한국역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39-69.

209-231.

조지윤, “성서번역자 양성과정을 위한 제안 - 스코포스 이론과 번역의 실재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제12호(2003.1), 121-140.

——, “존대법 번역과 성경번역 접근법”, 『성경원문연구』 제25호(2009, 10), 127-148.

“대한성서공회 회의 자료집”, 제1권, 대한성서공회, 성서학 도서관 소장 자료.

Althann, Robert, *Studies in Northwest Semitic*, Biblica et Orientalia Book 45,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7.

Andrason, Alexander, "An Oportative Indicative? A Real Factual Past? Toward A Cognitive-Typological Approach to the Precative Qatal,"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vol. 13, (2013), 1-42.

Black, Matthew *Romans*, NCBC,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73.

Block, Daniel I. *Ezekiel 1-24*, NICO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7.

Boadt, L. "Ezekiel's Oracles against Egypt: A Literary and Philological Study of Ezekiel 29-32", *BibOr* 37,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80, 58-59.

Brownlee, William H. *Ezekiel 1-19*, WBC, Dallas: Word Books, 1986.

Bush, F. W. "I am who I am: Moses and the Name of God", *Theology, News and Notes* (Fuller Seminary, December 1976), 10-14.

Butenwieser, Moses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with a new Translation*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69 [1st ed. 1938]), 19-25 (from Hebrew Union College Jubilee Volume, 1925, 89-111).

Craigie, Peter C. *Psalms 1-50*, WBC, Dallas: Word Books, 1995.

Cranfield, C. E. B.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II, ICC, Edinburgh: T. & T. Clark, 1975.

www.kci.go.kr

- Dahood, Mitchell, *The Psalms I:1-5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5;
- , *The Psalms II: 51-10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8;
- , *The Psalms III: 101-15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0.
- Davidson, A. B. *Hebrew Syntax*, Edinburgh: T. & T. Clark, 1902.
- de Waard Jan & Nida, Eugene 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Thomas Nelson Inc., 1986.
- de Vaux, Roland, *Historia antigua de Israel*, vol. I, Madrid: Ediciones Cristiandad, 1975), 341-343 (Original edition: *Histoire Ancienne D'Israel*, Paris: J. Gabalda et Cie. Editeur, 1971).
- Dunn, James D. G. *Romans 9-16*, WBC, Dallas: Word Books, 1988.
- Dyrness, William, *Themes in the Old Testament*, Downers Grove: IVP, 1979.
- Eitan, Israel, "Hebrew and Semitic Particles: Comparative Studies in Semitic Philology," *AJSL* 46(1929), 22-51.
- Ewald, Heinrich, *Syntax of the Hebrew Language*, tr. James Kennedy, Edinburgh: T. & T. Clark, 1879 (Originally, *Ausführliches 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 des alten Bundes*, Göttingen, 1870).
- Gibson, J. C. L.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Syntax*, 4th ed. T. & T. Clark: Edinburgh, 1896(A. B. Davidson, 2nd ed.), 1994.
- Ginsberg, H. L. "The Rebellion and Death of Ba'lu." *Orientalia*, 5(1936), 161-198.
- Huehnergard, J. "Asservitive *la* and Hyperthetical *lu/law* in Semitic" *JAOS*103(1983), 569-593.
- Hughes, James A. "Another Look at the Hebrew Tenses," *JNES*, 29 (1970), 12-24.

- Joüon, Paul &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2006, originally, *Grammaire de l'hébreu biblique*.
- Lipiński, Edward *Semitic Languages: Outline of a Comparative Grammar*, 2nd ed., Leuven: Peeters Publishers, 2001.
- McFall, L.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heffield: Almond Press, 1982.
- Ogden, G. S. "Idem per idem: Its Use and Meaning," *JOST* 53(1992), 107-120.
- Pope, Marvin H. "Vestiges of Vocative Lamedh," *UF* 20(1988), 201-207.
- Statham, Nigel, "NIDA AND 'FUNCTIONAL EQUIVALENCE': The Evolution of a Concept, Some Problem, and Some Possible Ways Forward", *The Bible Translators*, 29-43.
- Suderman, W. Derek, "The Vocative lamed and Shifting Address in the Psalms: Reevaluating Dahood's Proposal", *VT* 65(2015), 297-312.
- Waltke, Bruce K. &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검색어

표준새번역

새번역

당신과 너희

회구법 카탈

호격 라메드

동어반복

The Past and Future of the Translation of New Korean Standard Version

Cheol-Woo Park, Ph. 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Korea Nazarene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New Korean Standard Version (NKSX, published in 1993), its particularity and limitation, and indicated the direction and methodology for its further development and renovation.

I pointed out the problem of the 2nd personal pronouns of the Korean language ('dangshin' and 'neohee') that, I consider, was not adequately dealt with in the New Korean Version (NKV, published in 2001), which is the revised edition of NKSX. I showed the reader-responses of these expressions and suggested the way of solution on the basis of the direct survey at Korean Nazarene University and Anjung Nazarene church in Pyeongtaek city.

The total participants of the survey were 123 persons. 107 persons (87%) favored

www.kci.go.kr

‘neohee’, and only 16 persons (13%), ‘dangshin.’ The reason for the preference of ‘neohee’ was that ‘dangshin’ is more businesslike and unfamiliar, while ‘neohee’ brings about more intimate and affectionate feeling.

In addition, I mentioned some grammatic problems, which were not fully treated in either NKS_V or NK_V: (1) the matter of the precative/optative Qatal; (2) that of the vocative lamedh; (3) that of the idem per idem sentence structure. I consider that these problems and matter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future translation and revision of the Korean versions, NKS_V in particular, to enhance their translation quality and degree of completion.

With this study I brought into relief the need and direction of the enhancement and upgrade of NK_V through a new revision to achieve a new synthesis out of the combination of antithesis (NK_V) and thesis (NKS_V) in the dialectic development.

Keywords

New Korean Standard Version

New Korean Version

dangshin and neohee

precativе/optative *Qatal*

vocative *lamedh*

idem per idem

- 투고일: 2018년 7월 7일
- 심사일: 2018년 7월 8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7월 27일

www.kci.go.kr